

201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언어 영역

정답

1	③	2	①	3	②	4	⑤	5	⑤
6	①	7	④	8	①	9	②	10	③
11	②	12	①	13	③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④	19	④	20	④
21	①	22	⑤	23	④	24	⑤	25	②
26	③	27	②	28	②	29	③	30	⑤
31	②	32	②	33	⑤	34	①	35	①
36	④	37	①	38	③	39	③	40	②
41	⑤	42	④	43	③	44	③	45	⑤
46	①	47	④	48	④	49	④	50	②

해설

[1] 이제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에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집안의 보물로 전해 내려오던 기러기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매우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위해 각지에 있는 산을 찾아다니는 때도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군자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것을 즐길 뿐이다. 군자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같이 정신의 도를 구하는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우리는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는 도리어 또다시 그림을 갖고 길을 떠나려 하고 있으니 혹 수행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젊은 스님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깨달은 바가 큼니다. 이번 수행을 떠날 때는 그림을 제 아우에게 주고 가겠습니다. 대신 스승님께서 그림 속 기러기의 모습을 글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저는 그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기러기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기러기를 그린 글을 가져가겠다는 소리구나. 너는 아직도 _____”

1. [출제의도] 대화 상황을 파악하여 화자의 적절한 반응을 추론한다.

‘스승’은 ‘군자’의 태도와 비교하며 ‘집착’을 버리도록 일렀으나 ‘젊은 스님’은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스승은 ‘젊은 스님’에게 ‘정신의 도’를 구하는 태도로서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여 ‘젊은 스님’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④는 대화의 상황과 무관하며 ①, ⑤는 대화 내용에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각각 ‘스승’의 훈계 내용으로부터 ‘집착’의 의도와 결과를 과도하게 연결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혹시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을 갖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무대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이 무대는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프로시니엄 무대입니다. 무대가 관객의 정면에 있고, 무대와 객석이 확연하게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관객의 시선과 관심을 무대 위에 집중시킬 수 있

어요. 하지만 관객은 무대의 한쪽 면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객은 다른 무대보다 무대와 거리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무대가 돌출 무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무대를 보면, 이 무대는 프로시니엄 무대와 유사하지만 무대의 가운데 부분이 객석 사이로 튀어나와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이 무대는 무대와 관객들의 거리가 프로시니엄 무대보다 가까워져 관객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주는 또 다른 무대로는 원형 무대를 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형 무대는 무대가 객석에 의해 360°로 둘러싸여 있는 무대입니다. 무대 자체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무대가 한가운데 있어 앞서 소개한 무대들보다 무대와 관객들의 거리가 훨씬 더 좁혀집니다.

원형 무대와 유사한 형태의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모난 상자 모양의 공간 안에 객석이 있고, 그 객석에 의해 직사각형의 무대가 둘러싸여 있죠. 이 상자형 무대는 보통 움직일 수 있는 객석과 연기 구역을 갖추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가능한 무대입니다.

2.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강연에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무대는 프로시니엄 무대(③)이며, 프로시니엄 무대의 딱딱함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시니엄과 원형을 결합한 형태의 무대가 돌출무대(⑤)이다. 강연에서는 원형 무대도 설명하고 있다. 원형 무대는 ②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원형 무대와 유사한 형태의 무대이지만 네모난 상자 안에 객석이 무대를 둘러싸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가능한 상자형 무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④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은 횡단 무대로 무대가 객석 사이를 가로질러 있어 객석 양쪽에서 무대를 마주보게 되는 무대 형태이다.

[3] 이제 삼촌과 조카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삼촌(남): 은주야, 저 교복 어때? 예쁘지 않나?

조카(여): 네, 세일러복이네요! 사각형 깃과 스카프가 있어서 정말 예뻐요. 음....., 그런데 삼촌은 해군이었잖아요. 세일러복은 원래 해군들이 입던 옷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복이 되었는지 아세요?

남: 물론 알지. 1864년에 영국 해군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어린 아들, 에드워드 왕자에게 세일러복을 선물한 적이 있었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왕실을 따라 하는 데 열을 올리던 때야.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가 세일러복을 입자 사람들은 세일러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여: 그럼 사람들이 세일러복을 일상복으로 입기도 했겠네요?

남: 당연하지. 먼저 세일러복은 중상류층 사이에서 아동복으로 인기를 모았다고 해. 이후 어떤 사업가가 세일러복 원피스를 초등학생용 교복으로 판매했는데, 이게 크게 유행한 거야. 왕실을 따라 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녀들에게 세일러복을 입혔던 거지.

여: 그런데 세일러복의 깃과 스카프는 왜 있는 거예요? 장식이었나요?

남: 멋을 내기 위한 장식은 아니었던단. 사각형 깃은 원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한 천이었지. 거친 항해를 하다 보면 흰색 제복의 등과 목둘레가 더러워지는 건 피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커다란 깃을 어깨와 등 쪽에 덧댄 거야. 그리고 스카프는 땀을 닦는 타월이었던.

여: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삼촌.

3.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대화는 본래 해군을 위한 제복이었던 세일러복이 어떻게 교복으로까지 활용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화에는 지금은 예쁘게만 보이는 세일러복의 디자인이 처음에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의 모방 심리에 의해 일상복으로, 더 나아가 교복으로 정착되었다는 정보가 나타나 있다.

[4~5]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사회 시간입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먼저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해주시죠.

김 박사(여자):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습니다. 목이 말라 사이다를 마시고 싶는데, 사이다가 없다면 대신 콜라를 마시는 식이지요. 하지만 의료 서비스 시장은 다릅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음료를 고르듯 아무 병원이나, 아무 의사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남자: 의료 서비스는 일반 시장의 상품과 달리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여자: 예, 그렇습니다. 의료 서비스라는 상품은 한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수가 충분하더라도 소비자, 즉 환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병원을 설립하는 데는 더 큰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의사와 병원의 수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보다 항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그래서 종합 병원에 항상 그렇게 많은 환자가 몰리는군요. 저도 종합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까지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여자: 그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 지식은 매우 전문적이어서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생각해보시면 될 텐데요,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중고차 판매자를 통해서만 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남자: 중고차 판매자는 중고차의 좋지 않은 점을 숨길 수 있으니 정보가 판매자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성을 나타낸다고 보면 될까요?

여자: 맞습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도 중고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선택에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는 시장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출제의도] 방송 대담의 내용을 파악한다.

ㄷ. 여자는 두 번째 말에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고, 환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병원을 설립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의사와 병원의 수가 적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하였다. ㄹ. 여자의 세 번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가 한 말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으나, 상반된 관점에서 화제에 관해 질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여자는 일반적인 시장과 대비하며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여자는 의료 서비스 시장과 유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이는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고 있다. ③ 남자의 두 번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신이 병원에 갔었던 경험을 들어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수가 적다는 여자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연상한다.

<보기>에는 떡배기의 특성과 떡배기로 요리할 때의 장점이 제시되어 있다. <보기>의 자료로부터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오랜 시간을 사용해도 제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③ 떡배기는 뜨거운 가마에서 여러 차례 구워져서 단단하다. 이로부터 떡배기가 시련을 이겨내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내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생성은 적절하다. ④ 떡배기는 다양한 재료를 어우러지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⑤ 떡배기는 쉰 열을 부드럽게 바꾸어 재료가 타지 않게 한다. 재료가 타지 않아야 음식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떡배기는 재료가 제맛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한다.

내용 면에서 '당신의 삶은 보람으로 가득 찹니다'에 동아리 활동의 의의가 나타나 있다. 표현 면에서 '당신의 삶'을 '항무지'로 비유하고 있으며, '이웃을 외면하는 당신'과 '이웃과 함께하는 당신'을 대조하고 있다.

8.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한다.

'한옥 마을의 조성을 둘러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한옥 마을의 조성을 둘러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한옥 마을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유의어의 교체 방식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보기>의 ㄴ을 보면 '한 바탕 싸운 뒤에 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되지만, '한 바탕 싸운 뒤에 둘의 관계가 아득해졌다'는 부자연스럽다. '둘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할 때의 '멀다'는 물리적인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원해짐'을 뜻하는 말이므로 이것을 통해 '멀다'는 '서로 소원해짐'의 의미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ㄱ을 보면 '먼 옛날'과 '아득한 옛날'이 모두 가능하므로 둘 모두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ㄷ을 보면 어떤 기준점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로 '멀다'는 가능하지만, '아득하다'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ㄹ을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막막함을 나타내는 말로 '아득하다'는 가능하지만 '멀다'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ㅁ을 보면 의식이 흐려짐을 나타내는 말로 '멀다'는 가능하지만, '아득하다'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자료를 해석하여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한다.

(나)에서는 전국적으로 보육 시설의 정원이 남음에

도 많은 지역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보육 시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일본의 경우 보육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해 부모들의 보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고 있다. (나)와 (다) 모두 우리나라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보육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1.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퇴고한다.

관소리의 3요소 중 창, 아니리에 대한 설명이 앞 문장에, 발림에 대한 설명이 뒤의 문장에 이어지고 있다. 앞 문장과 대등한 내용이 덧붙여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러나'를 '그리고'나 '또한'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지시 대상에 따라 인칭대명사의 종류를 구별한다.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보면, 문 앞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때의 '누구'는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칭 대명사로 파악한 ㉠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은 자신을 낮추는 일인칭 대명사, ㉡은 미지칭대명사, ㉢은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인 할머니를 다시 받는 재귀대명사, ㉣은 이인칭 대명사이다.

[13~18] (시가복합) (가) 정지용, '옛 이야기 구절' / (나) 박목월, '만술(萬術) 아버의 축문(祝文)' / (다) 김춘택,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1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나)에서는 '만술 아버'가 돌아가신 '아베'에게, (다)에서는 '나'가 '저 각시님'을 향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공간은 '제사상' 앞이다. 공간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서는 특정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에서는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가)~(다)에 모두 자연물이 등장하고 있으나, 화자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보기>의 설명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만 아니라 사물과 자연물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를 '기름불'이 '깜빡'이며 듣는 모습 등을 통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의 7연에 제시된 '문고리', '지붕', '밤하늘'도 공감할 수 있는 사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함께 제시한 것이 사물과 자연물의 상호 감응을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5.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정확'은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술'이고, '부월'은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의미한다. 따라서 점층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닭이 울도록'은 새벽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새벽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② '속살대는'을 통해 '이 시골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의인화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제사상'에 '등잔불'이 없는 상황을 통해 가난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별인들 갈을손가'는 설의적 표현이다. 이를 통해 이별이 모두 같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설명한다.

㉠의 청자는 '아버지', '어머니', '누이', '그 사람'이라

는 가족들뿐 아니라 '기름불', '시골 밤'이라고 볼 수 있다. ㉡의 청자는 '늙으신 아버지'뿐 아니라 ㉠의 청자로 제시된 존재 모두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청자가 ㉡의 청자인 '늙으신 아버지'의 일부로 통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특정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한다.

[A]에서 '만술 아버'는 돌아가신 '아베'의 '제사상'에 '간고등어 한 손'을 올려 '아베 소원'을 풀어 드리려 한다. 그런데 '소금에 밥'으로 보아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B]에서도 화자는 정서를 다해 '주머니'를 만들어 입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입과 떨어져 있어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A]와 [B] 모두 이러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길쌈을 모르거나 가무야 더 이룰까'는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일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도 할 줄 모른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말하며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19~21] (기술) 루돌프 키펜한, '암호의 해석'

19. [출제의도]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전기 암호 장치는 회로 구조가 곧 평문 철자와 암호 철자의 대응 규칙이지만, 에니그마는 원통의 회전에 따라 평문 철자와 암호 철자의 대응 규칙이 계속 바뀌므로 원통 속의 회로 구조만으로는 암호를 해독할 수 없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⑤ 전기 암호 장치는 상황에 따라 회로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회전하는 원통 속에 회로 구조를 넣은 에니그마를 개발했다. ②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는 회로 구조를 통해 평문 철자를 암호 철자로 교환하는 환자 방식을 구현한 것이다. ③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는 스위치 쪽에서 평문 철자를 입력하고 램프에서 암호 철자가 나온다.

2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영희가 철수에게 보낸 'gofkdtksjif'는 철수의 답신 내용을 통해 '널 사랑해'라는 평문을 암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글 입력 모드에서 이 영문을 입력하고, 그걸 거꾸로 읽'으라는 영희의 말은 이 암호를 해독하는 '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널 사랑해'는 영희가 전하고 싶은 평문이다. ②, ③ 영희는 이것을 전치 방식을 통해 '해랑사널'로 바꾸고, 다시 영문 입력 모드로 입력하여 암호문 'gofkdtksjif'를 만들어 낸 것이므로 한글을 알파벳 문자로 환자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⑤ 철수는 영희가 준 '키'를 통해 암호를 풀었고, 영희의 방식으로 자신도 '해랑사도나'라는 암호를 만들어 영희에게 보낸 것이므로 이것은 '나도 사랑해'라는 평문을 전치 방식으로 만든 암호임을 알 수 있다.

21. [출제의도] 글에서 설명한 기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

[그림 2]의 에니그마에 첫 번째 암호 철자 'b'를 입력하면 원통이 회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암호 철자 'A'를 얻게 된다(b-2-1-A). 두 번째 암호 철자 'c'를 입력하면 원통이 반시계 방향으로 1/4만큼 회전했으므로 암호 철자 'B'가 나오게 된다(c-2-1-B).

[22~24] (예술) 하선규, '공간, 영화, 영화-공간에 대한 미학적 고찰'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유희적 동일시 이론은 미적 주체가 객체와의 '융합'만을 통해 미적 유희를 경험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미적 주체와 객체의 분리와 융합의 '중간 상태'를 통해 미적 유희를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23. [출제의도] 글의 논지 흐름을 이해한다.

첫째 문단에서 '관객은 영상의 흐름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동일시 이론을 통한 설명(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둘째 문단에서 미적·유희적 동일시(ㄴ)를 통해, 동일시 이론(ㄱ)의 한계를 지적하고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셋째, 넷째 문단에서는 영화 속 공간의 특성인 방향 공간(ㄷ), 감정 공간(ㄹ)을 내세워 미적·유희적 동일시를 통한 설명(ㄴ)의 한계를 보충하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ㄹ을 근거로 ㄴ, ㄷ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⑤는 인물의 시선 자체가 지닌 방향성을 지각하고, 영화 속 공간과 인물의 독특한 감정에서 비롯된 분위기의 힘을 느끼고 있다. 방향 공간을 인지하면서 감정 공간의 분위기를 감지한 반응으로, 영화 공간과 공감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은 장소 공간, ②는 방향 공간, ③은 장소 공간, ④는 감정 공간에 대한 반응이 중심이 된 것으로 다양한 공간의 층들을 동시에 인지하고 공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5~27] (언어) 이기문, '국어사 개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인 구개음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개음화의 개념 및 그것이 일어나는 음운 조건, 구개음화가 일어난 시기와 지역, 구개음화와 관련된 자료, 구개음화가 진행된 과정과 양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 '이르다'는 구개음화된 'ㄴ'이 어두에서 음운 제약에 의해 탈락된 것이고, ㉡은 'ㅌ'이 'ㄷ'으로 구개음화된 것이다. 이 둘 모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뀐 단어이다.

[오답풀이] ㉠에는 구개음화된 'ㄴ'이 탈락되어 나타나 있지 않고, ㉡에서는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지 않았다. ㉠과 ㉡ 모두 단일 형태소 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며,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다.

27.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자료에 적용한다.

③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ㄷ'과 'ㅌ'은 구개음이 아니었다.

[28~31] (인문) 나인호, '코젤렉의 개념사 연구'

28. [출제의도]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이 글은 어째서 개념사가 출현하게 되었는지, 개념사에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개념사는 개념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는지 그리고 개념사는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설명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동인(動因)'은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의 발달은 산업 사회에서 정보 통신 사회로 이행하는 결정적 동인이 되고 있다.'와 같이 쓰

인다. '연관성이 먼,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원인(遠因)'이다.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이 글은 개념사의 연구 대상, 개념사에서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 개념사에서 개념을 연구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보기>는 '의리'와 '예'와 같은, 조선시대에는 주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였던 개념들이 오늘날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개념사의 입장에서는 '의리'와 '예'의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개념들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와 논쟁이 벌어져 왔는지 주목할 것이다.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의 '의리'와 '예'의 개념을 오늘날 '의리'와 '예'의 개념을 의미 있게 소통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대 역사학에서처럼 '단 하나의 올바른 묘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에 축적되어 있는 중층적인 의미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오답풀이] ① 개념사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해석의 차이에 주목하므로 '의리'와 '예'의 개념이 조선 시대와 오늘날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할 것이다.

② 개념사의 관점에서 개념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기>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사용된 '의리'와 '예'의 개념 역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③ 개념사에 따르면, '역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룬다. '의리'와 '예'의 개념 역시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그것을 기록, 해석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의 층을 쌓아 오게 된다. ④ 코젤렉에 따르면 '개념은 실재의 지표이자 요소'이다. 이 말은 '의리'와 '예'와 같은 개념들이 실재를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정치 사회적 사건과 변화를 일으키는 실재적 요소라는 의미이다.

3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관점을 이해한다.

개념사에서는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역사가가 무엇을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지에 주목한다. 이 글은 개념사가 개념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에 대해 '개념은 실재의 지표이자 요소'라는 코젤렉의 말을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말에서 개념은 실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므로, 개념이 역사 속의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근대화'라는 개념이 실제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동인이 되었다는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념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여 실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은 사회가 추구했던 목표, 혹은 그 사회가 현재 추구하는 목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35] (고전소설) 작자 미상, '영이록(靈異錄)'

3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은 '손기'와 '형 한림', '손기'와 '소운성', '손기'와 '신령'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손기는, 소운성의 아들을 구해달라는 형 한림의 청을 정중히 거절한다. 그러자 소운성은 자신을 낮추어 손기에게 자신의 아들을 구해줄 것을 간절히 청하고, 소운성의 청을 받아들인 손기는 신령에게 명하여 소운성의 아들을 살려낸다. 따라서 이 글은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손기'는 ㄴ을 해결하기 위해 '신령'을 불러낸다. 그리고 '신령'에게 '소운성' 아들의 넋을 돌려보내고

'광대'를 잡아 소씨 집안으로 보내도록 하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ㄱ을 해결하기 위해 '신령'에게 '광대'를 잡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없다.

3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파악한다.

[A]에서 형 한림은 '엄파와 인상여'의 고사를 들어 손기가 인상여보다 더 위엄이 있음을 강조하며 손기를 지켜세우고 있다. [B]에서 손기는 황제였던 '한 무제'와 모자란 자신을 대조하여 황제도 못한 일을 자신이 어찌할 수 있겠냐며 겸손하게 거절하고 있다. [C]에서 형 한림은 제나라 '환공'의 행적을 제시하여 손기가 '환공'의 선행을 본받도록 유도하여 소운성 아들의 넋을 구할 것을 청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처지를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소운성은 손기의 도움으로 거의 죽을 뻔한 아들의 넋을 되찾게 된다. 기사회생(起死回生)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을 뜻한다. 따라서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사회생'이다.

[36~39] (과학) 마틴 리스, '우주'

3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셋째 문단 첫 문장에서처럼 슬라이퍼의 연구는 우주가 팽창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④는 이 글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 다섯째 문단 여덟 번째 줄을 보면, '빛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나와 있다. ② 둘째 문단 둘째 줄부터 보면, '별빛 스펙트럼은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청색을 띤다'라고 나와 있다. ③ 셋째 문단 여섯째 줄을 보면,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음도 밝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는 다섯째 문단 끝 문장의 '그 결과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구조를 파악하여 비교한다.

②는 대립되는 두 한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강건(剛健)'이다. '강(剛)'은 '굳세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건(健)'은 '튼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건'은 대립적 의미를 지닌 한자의 결합이 아니다.

3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개념 및 원리를 구체적 자료에 적용한다.

(가)는 (다)보다 흡수선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적색 편이의 정도가 큰 것이다. 적색 편이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은 별빛이 나온 별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떨어져 가는 빛은 파장이 길어진다. 따라서 (가)가 (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이므로 (가)의 별빛의 파장이 (다)의 별빛의 파장보다 더 길다.

[오답풀이] ① (가)가 (나)보다 적색 편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부터 온 별빛의 스펙트럼이다. ② (나)가 (다)보다 적색 편이의 정도가 더 크다. 별은 관측 위치로부터 멀어지면 그 별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빛 스펙트럼 내의 흡수선도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렇게 적색 편이가 크면 더 멀리 있는 것이고 더 멀리 있으면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적색 편이의 정도가 더 크므로 (가)가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별로부터 온 별빛의 스펙트럼이다. ④ <보기>의

(가), (나), (다)는 분석 결과 동일한 유형의 흡수선이다. 흡수선의 유형이 같으면 별의 대기에 동일한 원소가 있는 것이다. ⑤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가), (나), (다)의 별빛이 온 별들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된다. 더 먼 별에서 온 별빛의 스펙트럼에는 적색 편이 현상이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 나타나게 된다.

39. [출제의도] 현상과 관련된 정보를 추리한다.

맥동 변광성은 별의 내부 구조가 불안정하여 팽창과 수축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맥동 변광성의 한 종류이다. 그러므로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가 길면 실제 밝기가 밝고 주기가 짧으면 실제 밝기가 어두운 이유는, 팽창과 수축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팽창이 많이 이루어지면 별의 밝기가 밝아지고 수축이 많이 이루어지면 별의 밝기가 그만큼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40~43] (현대소설) 양귀자, '밤의 일기'

4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지만, '태희'의 시각을 중심으로 '여자'와 '남편'의 언행이 해석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불행을 외면한 이웃 주민들에 대한 '여자'의 분노가 증폭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으며, '남편'에 대해서는 '태희'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③ 서술은 작중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④ '태희'가 아니라 '여자'가 직접 겪은 사건이 서사 전개축이 되고 있다. ⑤ '여자'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태희'가 '여자'에 대해 이중적인 심리를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41.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

㉞은 '여자'가 자신을 도와달라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가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은 그의 불행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㉞이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여자'와 '태희'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태희'가 '바깥 세계'로 나갈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여자'가 일을 겪었을 때 집을 비우게 된 배경을 말해 준다. ② '여자'는 자신이 당한 일을 '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여 '끔찍한 기억'을 덮고자 한다. ③ '여자'의 주먹질은 '여자'의 분노 행동이다. 아울러 태희는 그 행동에서 '슬픔의 유영체'를 느낀다.

42. [출제의도] 작품의 서사 구조를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여자'의 사건을 서술하면서 '남편'의 사건을 병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연결을 통해서 일상의 '우리'가 '부조리한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사건들'의 구조적인 연결과 관련성이 없는 답지이다. ② '남편'에게 '여자'의 불행에 관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남편'의 실종에 관한 태도와 '어린 딸'에 대한 모성은 성격이 다르며 일치되어 서술되지도 않았다.

4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한다.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부조리한 폭력이 작동하는 기제를 탐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자'가 '손가락 관절'을 부러뜨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불행을 외면한 이웃에 대한 분노이며, 이 분노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새로운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고통에 대한 모두의 외면과 침묵은 폭력이 작동하고 전개되는 기제의 일부를 이룬다. 고

통을 겪는 사람과 함께 하는 태도는 그러한 기제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단서로 해석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사라진 '남편'의 사건은 폭력의 부조리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태희'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수궁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며, 이는 폭력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여자'는 강도의 침입 그 자체보다 강도를 막고 자신을 돕기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은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경악하며, '커다란 절벽'을 느끼고 있다.

[44~46] (희곡) 이근삼, '유실물'

44. [출제의도] 글의 갈래상 특징을 이해하여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한다.

'상무'는 '꽃향기'를 맡고 자신이 잃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그리고 단절되었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무'가 불안해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상무'는 '노파'가 '꽃향기'를 맡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꽃향기'라는 반응을 보이자 ㉠의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노파'에 대해 '미쳤다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을 말할 때 '상무'가 '노파'의 행동에 대해 어이없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노파'는 '잃고 싶은 물건이 있다'라고 말하며 '비서'에게 '수표'를 주고 있다. 물질적 가치를 표상하는 '수표'를 잃어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표'를 '비서'에게 줄 때는 망설임 없이 주어야 한다. ④ '점원'은 '노파'에 대해 '핑방한 분'이라며 '빨리 찾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점원'은 다급하게 ㉡을 말해야 한다. ⑤ '상무'는 10년 동안 일에 몰두해 가족을 등한시해 왔다. 그랬던 '상무'가 사표를 냈다는 말을 '비서'는 갑작스럽게 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서'가 사표를 냈다는 '상무'의 말을 듣고 그의 태도에 대해 의아해했을 것이라 사실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노파'는 잃고 있던 '꽃향기'를 찾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노파'는 '괜히 찾았구나'라고 말하며 '마음이 더 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꽃향기'를 찾았으나 너무 늦게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인간적 가치를 찾지 못한 채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너무 늦게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상무'는 10년 동안 집에 전화도 한번 걸지 않고 일에만 몰두해 살아왔다. 욕망에 얽매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② '꽃향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온 인물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상무'는 일에만 몰두해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상무'의 아내는 일에만 몰두했던 남편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비서'는 '수표'를 찢고 있다. 이는 물질적 가치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에 해당한다.

46. [출제의도] 대사의 기능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 '백화점 유실물 관리 센터'는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는 공간이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공간이다. '비서'는 관객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 이러한 '유실물 관리 센터'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방문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47~50] (사회) 이언 에어즈, '목표로 유인하는 강력한 행동전략, 당근과 채찍'

47. [출제의도] 문단의 핵심 내용과 서술 방식을 이해한다.

(가)는 사람들의 선호와 관련한 탈러의 사과 실험과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나)에서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의 결과를 통해 비밀관적인 선호를 설명하고 있다. (다)에서는 저축에 대한 선택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자기 결박적 약속의 예를 들고 있다. (라)는 (다)의 자기 결박적 약속에 의한 유인이 기존 경제학의 유인과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마)에서는 선호 비밀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인 전략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라)에서 소개한 반대 유인은 선택지를 줄이거나 없애는 유인 전략과 더불어 선호의 비밀관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인 전략일 뿐, 기존 이론과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48.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이해한다.

'공제'는 '금액이나 수량을 빼냄'의 의미로 한 부분을 덜어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선택: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② 역전: 형세가 뒤집힘. ③ 결여: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 ⑤ 부과: 세금 및 책임, 일 따위를 부담하게 함.

49.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시각 자료에 적용한다.

[A]에서는 장래의 큰 이익에 대한 효용이 크므로 ㉠보다 ㉡의 효용이 크다. 그러나 T 시점에서 장래의 큰 이익(㉠)과 작은 이익(㉡) 사이의 선호가 역전된다. 그러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5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ㄱ 회사는 전통적인 유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회사 입장에서 바라는 행동에 대해 당근으로서의 보너스를 주는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의 비밀관적 선호, 즉 신입사원들의 선호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며 신입사원들의 행동을 바꿀 만큼 강력한 유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 비해 ㄴ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 바라는 행동에 유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행동에 유인을 제공하였다. 즉 '퇴사하는 것'에 당근으로서의 유인을 제시하였으나, 이 경우 회사가 바라는 것은 당근을 거부하는 반대 행동이다. 그러므로 ㄴ 회사는 반대유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 ㄴ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300만원이라는 당근을 거부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ㄱ 회사의 보너스는 회사에 남는 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일 뿐 신입사원들의 선택지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ㄴ 회사의 신입사원은 300만원을 포기하고 반대 행동(퇴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④ ㄱ 회사의 유인 전략은 전통적인 유인 전략으로 사람들의 비밀관적 선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두 회사 모두 당근을 제시하였다. 단 ㄱ 회사가 제시한 것은 회사가 바라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며, ㄴ 회사에서 제시한 것은 반대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이다.